문화관광 새로운 백년대계 그린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올해 4대 경영목표 · 20개 주요추진과제 · 367억원 사업비 편성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024년 4대 경영 목표와 20개 주요추진과제를 설정, 사업비 367억 여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도민일상 문화 향유 확대, 방문 체류 관광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 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 등 4대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366억 9,600만원으로 경영기획(2개 사업) 6,500만원, 문화예술(11개 사업) 239억 8,600만원, 관광사업(13개 사업) 55억 3,000만원, 예술회관 운영(5개 사업) 9억 7,5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예술가들의 기초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3월 초 최종 360건의 선정을 마쳤다. 이로써 10개 장르 예술가 11,114명이 발간·공연·전시 등 창작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도민 348,767명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공연·시각장르 우수콘텐츠 발굴사업과 문화예술국제교류사업, 창작공간활성화사업으로 예술가들과 민간 예술공간이 자생력을 갖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7개 단위 사업도 공모, 추진 중이다.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은 장애·비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기회확대 및 장애예술 인식개선 계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10개 그룹(총 70명)이 전시회, 공연, 뮤직비디오 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의 기회를 펼쳤다. 그 중 대표적으로 '따박밴드'는 재단 문화예술 통합성과공유회 개막행사 공연을 담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도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발급률 전국 5위, 이용률 전국 3위를 달성해 사업추진 유공자 표창(문화체육부장관상), 우수 기관표창(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올해는 기초지자체?주민센터 담당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 모두의 문화적 삶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은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꿈다락 문화학교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대표적이다. 14개 시·군 지역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자 모집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재단은 오는 4월 말 구)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도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관사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획전시, 지역연계협력사업, 상설 도지사 전시실 운영, 백인의 서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옥마을 내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으로서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과, 세대·취향·생활패턴·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및 치유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내 특별한 치유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한다. 도 외 관광객이 도내 머무르며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전북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을 통해 전북자치도 관광객 유치와 전북자치도 관광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핵심 타깃 국가를 설정해 전북자치도 만의 특별한 관광상품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필리핀, 일본, 중국에 K-관광로드쇼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역 관광기업과 혁신 주체 발굴·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는 지역 관광거점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지난해 성과평가 '우수'를 받아 인센티브 추가 총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센터는 올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성과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은 언어 권역별 분류에 따른 홍보를 통해,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 대상을 중점 타겟으로 홍보마케팅을 진행한다.

전북자치도의 식품, 바이오산업 특화 정책 추진에 따라, 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마이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광 쇼케이스를 기획·운영해 특별한 전북자치도 마이스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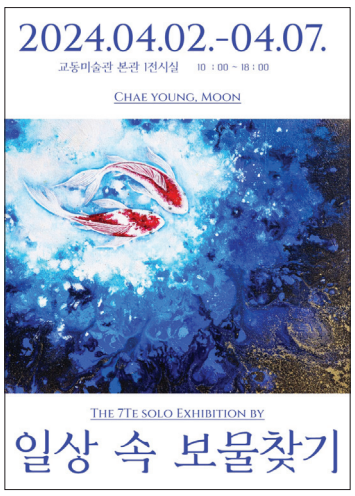
한편 재단은 지난해 ESG경영 활성화 사업을 신설,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추진했다. '혁신과 ESG경영으로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내걸어 세부 32개 실천과제와 부서별로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해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전사적 ESG경영전략 실행·확산을 추진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재단은 지난해 '도전경성'의 자세로 지역 현장과 밀착해 전북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2024년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문화관광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도민들과 함께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이나 기획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일상 속 보물찾기' 전시회 개최

문채영 서양화가 작품 전시 4월 2~7일 교동미술관서 진행



서양화가 문채영씨가 4월 2일부터 7일까지 교동미술관 본관 1전시실에서 '일상 속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캔버스 속에 펼쳐진 세상에 우리가 찾아 헤매는 일상 속 보물을 찾아 누군가의 보물을 찾아주며, 작가의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이 밝게 빛이 날 수 있게 시작과 끝이 없는 자유로운 출발을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게 됐다.

또한, 작가 주위에 모여든 물고기들과 함께 동무하며, 세상구경에 시간 흘러가는 줄 모르고 어디든 찾아 호기심 강한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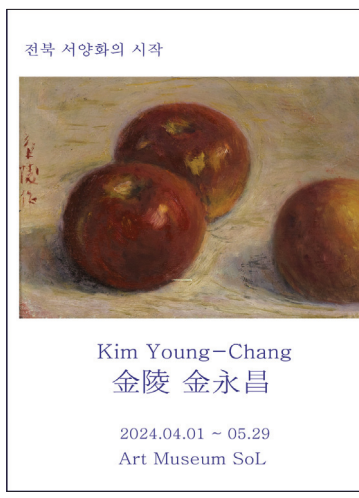
그러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을 품고 떠나는 자유여행을 캔버스 안에 담았다고도 했다.

그림 속에 자신을 통해 행복한 자유 속 일상, 특별하지 않는 반복된 생활 속이라도 세상을 즐기고, 느끼며 세상 어디든 감추어든 보물찾기라도 하듯, 누구나 다 일상 속 보물을 찾아 행복한 꿈을 이루고 살아가길 염원하며 자유속에 행복한 보물을 꿈꾸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회를 연 문채영씨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를 졸업하고 개인전 7회 등을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전북 미술대전, 소시빌미술대전, 온고을미술대전에서 수상을 받은 경력도 있으며, 현재 전북미술작가회 회원 등으로 지내고 있다. /김재훈 기자

'금릉 김영창 첫 회고전' 미술관 솔서 열린다



금릉 김영창 첫 회고전이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미술관 솔에서 열린다. 다만, 매주 목요일은 휴관이다.

이에 따르면 김영창의 작품세계는 일관되게 사실화풍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고전주의적 사실화풍에 인상파 화풍의 붓질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의 작품을 보면 깊고도 아른한 표현의 깊은 세계를 느끼게 된다. 그가 처음 그림을 공부하던 시기에는 대체로 인상파 화풍과 고전주의적 사실화풍이 혼재하고 있었다. 그의 선배였던 이순재가 이러한 화풍의 범주를 벗어나 있지 않았으며, 김영창 역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풍경, 꽃, 정물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봄바람에 흩날리는 들꽃의 아름다운 색을 표현한 〈꽃들〉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을의 풍경을 그린 〈설중풍경〉은 그의 인상파적 화풍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수작이다.

이 외에도 비원과 향원정 등 고궁 풍경을 그린 사실적인 작품 등 많지 않은 그의 유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6-0567)로 하면 된다.

한편, 김영창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사범학교 교내 전시회에서 전북 지역 최초의 서양화가였던 이순재의 눈에 띄어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고국으로 돌아와 전주에서 동광미술연구소를 창립,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해 입상하면서 한국 화단에서 중견화가로 명성을 얻었다.

해방 후 초기 전북화단의 중추적 인물로서 전북 화단을 이끌며 많은 활동을 했다. 이후 국전에서 추천작가로 활동했으며, 이어 국전을 비롯해 각종 미술대전에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지낸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탄력'

사업 선정 7400만원 확보… 우수 창제작으로 지역민 문화향유 증진 기대

전주한벽문화관 전경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뮤지컬, 오페라 등 대규모 공연 대비 전국 단위로 선보일 기회가 부족한 중소규모 공연 콘텐츠를 지역의 공연장과 협력하여 유통하는 사업으로, 기존 '방방곡곡 사업'의 재편성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8일 문화관에 따르면 이번 선정을 통해 확보한 7,400만원을 비롯해 자체 예산을 투여해 올해 총 2개 단체의 우수 창제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보일 공연은 서울 소재 극단 '악당'의 판소리 전래동화 〈호랑이를 타는 방법〉, 그리고 우리 지역 전주의 '타악연희원 아퀴'가 준비한 '타악 & DJ 퍼포먼스 비트 오브 스콜'이다. 두 공연은 문화관의 자체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선정됐다.

먼저 '악당'의 판소리 전래동화 〈호랑이를 타는 방법〉은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적 상상력이 가득한 판소리극으로 소리꾼과 이야기꾼이 익살스레 전해주는 오래된 전래동화와 함께 우리 소리의 매력, 그리고 우리 말의 '말맛'까지 담아낸 유쾌한 작품이다. 제30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연출상 수상 등 다양한 이력의 최여림씨가 연출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를 졸업하고 제26회 KBS 국악경연대회 성악부분 장원을 수상한 소리꾼 김윤아씨가 출연한다.

또 '타악연희원 아퀴'는 함께 신나게 즐기는 퍼포먼스형 공연 '타악&DJ퍼포먼스 비트 오브 스콜'을 선보인다. 학교를 배경으로 시간표 흐름에 맞춰 달라지는 퍼포먼스, 관객이 참여하는 핸드벨 코너, 그리고 신명나는 타악과 디제잉까지 관객들이 신날만한 각종 요소들이 총망라된 공연을 선보인다.

각기 다른 매력의 두 공연은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8월과(아퀴) 11월(악당)에 순차적으로 올려질 예정이다.

김철민 관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공연을 비롯해 서울지역의 새로운 공연까지 시민들께 선보이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이번에 선정된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외에도 전주마당창극과 우수작품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전주한벽문화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관광클럽 회원 초정 팸투어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한 한국관광클럽 회원 초청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팸투어는 남원시·임실군 일원의 신규 관광자원 소개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관계자 및 한국관광클럽(이하 클럽)회원 간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1일 차 일정은 남원 하주 발효 마을 탐방과 피낭시에 만들기 체험, 지리산 미술교육 체험 관공간인 에듀센터 '콩' 관람 등을 실시했다.

2일 차는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을 방문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한 회원은 "전북 지역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팸투어였다"며 "이를 통해 남원과 임실의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향후 클럽과 협력해 도내 동·남부권 관광 활성화와 부흥을 위해 지역 테마에 맞는 탄탄한 상품을 기획해 보이겠다"며 "센터를 거점으로 관계자 팸투어를 통해 전북자치도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뮤지컬 '넌센스'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1991년 초연이후 1,000만 관객 동원 국내 공연사상 최장기록을 달성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뮤지컬 '넌센스'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넌센스'하면 뮤지컬, 뮤지컬 하면 '넌센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 뮤지컬의 자리를 지켜온 공연으로 아이돌이나 한류스타를 내세우지도, 막대한 홍보비를 투자하지도 않고 입소문으로 뮤지컬 부흥을 이어왔고, 화려하고 웅장한 대형 뮤지컬들 사이에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과시하며 한국의 대중적 뮤지컬 중 최고의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남녀노소 연령 불문한 인기의 비결은 바로 '기발함' 고고함과 성스러움이 상징인 '수녀'들이 스마트TV를 탑내고 빙고게임을 즐기며 경마대회 복권을 사는 등 완벽하게 망가지고, 특히 극을 이끌어 나가는 5명의 수녀가 가진 반전 캐릭터는 뮤지컬 '넌센스'의 치명적 매력요인, 뛰어난 재능과 연기력, 열정을 가진 배우들이 확 달라진 '수녀시대'의 무용과 복화술, 클래식, 소울과 가스펠을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보여준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4월 2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전 개최… 한국영화 변천사 '한눈에'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올해 50주년을 맞은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과 협업해 '다시 보다: 25+50'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974년 개관한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 및 영상자료 등 영상 유산을 아카이빙 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와 시나리오, 포스터 등 영화 제작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요 자료들을 수집, 보존, 복원, 활용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25회 개최를 앞둔 전주국제영화제는 5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를 함께 맞이한 한국영상자료원과 협업을 통해 한국영화계를 이끈 명작들을 다시 보며, 한국영화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시 보다: 25+50' 특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시 보다: 25+50' 특별전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 4편과 한국영상자료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50/50'에서 4편, 최근에 타계한 김수용 감독과 이두용 감독의 대표작 2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영상자료원 김홍준 원장과 전주국제영화제 민성욱 집행위원장의 특별전 소개 영상도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영화제 기간에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한국영상자료원 50주년을 기념해 두 기관의 역사와 현재를 이어가는 프로그램 이벤트도 준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광한루원 음악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한국 4대 누각 중 하나인 남원 광한루(보물 제281호)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광한루원 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남원 광한루원 내 완월정에서 4~5월, 9~10월(총 16회)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광한루를 찾는 어린 관람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50여 분간 짧게 진행된다.

공연에서는 광한루의 봄을 깨우는 기악 독주, 판소리(춘향가), 민속무용, 남도민요, 단막창극, 사물놀이로 꾸며지며, 20여명 규모의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 단원들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김중현 원장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 봄과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광한루를 배경으로 국악의 멋과 매력을 다채롭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 관람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완월정 누각의 출입인원 제한과 개인용 방석이 제공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